

“대우버스 공장 폐쇄·집단해고, 인면수심 백성학”

대우버스 공장 폐쇄 국가 제제·책임 촉구... 백성학, 아들에게 버스 생산 재산·권리 넘기고 폐업

두 번이나 부당 집단해고를 당한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저지르는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와 베트남 이전을 국가가 막아달라며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나”라며 “백성학이 자일 대우버스에 벌이는 행태를 국가가 제재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지회는 1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일대우버스 국내 공장 폐쇄·베트남 먹튀, 국가 제제·책임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리지회장은 “대우버스 대주주인 영안모자는 부당 정리해고 복귀 후 1년 동안 노동조합 없는 공장, 최저임금 공장을 만들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영안모자 자본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때문에 폐업한다는데 노동자들은 울산공장과 부품사 노동자들을 지키려고 임금삭



감과 순환휴직 등을 수용하고 공장 정상화에 힘을 쏟았다”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외하고 사측의 요구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영안모자 자본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다”라며 “백성학이 울산공장용지 세 곳과 기계 설비, 부품·협력사 계약 등 버스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둘째 아들의 자일자동차에 넘기고 폐업했다”라고 밝혔다.

박재우 지회장은 “대우버스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복직 1년 만에 또 해고자가 됐지만, 백 회장이 둘째 아들 회사가 버스 제조 사업을 고스란히 넘겨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다. 얼굴은 사람인

데 마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일컫는다. 대우버스 백성학이 그런 자다”라면서 “대우버스 기반시설과 사업권을 아들에게 돌려놓고 껌데기인 대우버스 법인만 폐업했다. 베트남공장에서 버스를 생산하려는 꿈수다”라고 꼬집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한국의 외국 투자자본 횡포로 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나지만 국가는 10.29 이태원 참사처럼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우버스에서 백성학이 벌이는 집단해고와 자본 유출을 울산광역시 지방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자일대우버스는 2010년 10월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2021년 6월 현장으로 복귀했다. 백성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포기하려는 수준의 요구를 하다 지난 7월 폐업했다. 노동자들은 두 번째 집단해고 당했고, 백 씨는 버스 생산 관련 재산과 권리를 아들에게 넘겼다.

금속노조 2022년 중앙교섭 마무리

11월 15일, 중앙교섭 조인식 ... 금속 산별교섭 통해 산업전환협약 구체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2년 중앙교섭 합의안에 최종 서명·날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금속 노·사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22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금속 노·사는 앞서 8월 9일 12차 교섭에서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의견접근안 찬반투표 총회를 열었다. 투표결과 68개 사업장 15,239명이 투표해 86.2%가 찬성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중앙교섭 협약은 사업장 협약과 달리 상징적인 내용이 많다”라며 “협약 이행 과정에서 문서 내용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진행했으면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조인식 인사에서 “안전 문제, 미래 산업에 대해 조향이 깊이 있는 요구안을 제출했고, 사용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며 “사용자협의회는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100%는 아니지만 노·사 모두 의미 있는 합의를 해서 교섭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금속 노·사는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57조 5항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를 신설했다.

통일요구 ▲31조 1항은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로 개정했다.

▲31조 2항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31조 3항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 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31조 4항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신



설했다.

금속 노·사는 중앙교섭 요구 금속산별협약 ▲20조 1항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710원과 월 통상임금 2,194,46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20조 4항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등을 개정했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급 90원 많고, 지난해 대비 460원, 4.97% 오른 금액이다.

중앙교섭 요구 ▲42조 1항은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로 바꿨다.

▲42조 2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42조 3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 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를 신설했다.